

# 내년 MLB 개막전, 3월 서울서 '팡파르'

### 다저스vs샌디에이고 3월20~21일 서울시리즈 2연전 김하성 "SD 유니폼 입고 한국서 뛰는 것 기쁘고 행복"

내년 봄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공식 경기가 열린다.

MLB 사무국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4년 3월20~21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벌인다고 13일 발표했다.

MLB닷컴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 MLB 공식 경기이며 다저스와 파드리스의 2연전이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이라고 보도했다.

샌디에이고의 한국인 타자 김하성은 한국인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다저스를 상대로 고국 팬 앞에서 한 단계 성장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MLB 사무국은 서울시리즈 개최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3월 하순의 날씨를 고려해 한국 유일의 돔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개최지로 유력하다.

KBO 사무국은 "오래전부터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정규리그를 벌이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MLB 사무국 관계자가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현지 환경

등을 실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MLB 선수노조와 합의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정규리그를 진행하는 월드 투어를 추진해왔다.

MLB 공식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린 건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 2000년·2004년·2008년·2012년·2019년 일본 도쿄, 2001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2014년 호주 시드니에 이어 내년 서울이 9번째다. 아울러 서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MLB 공식 개막전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특히 다저스는 시드니에서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2014년 이래 두 번째이자 10년 만에 국외에서 시즌을 출발한다.

스탠 캐스틴 다저스 사장은 "박찬호(은퇴), 최희섭(현 KIA 타이거즈 코치),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다저스에서 뛰던 선수들을 포함해 풍부한 야구 전통과 재능을 지닌 한국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뽐낼 생각에 설렌다"고 밝혔다.

1999년 콜로라도 로키스와 몬테레이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3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3 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 8회에 솔로 홈런을 쳐낸 뒤 베이스를 들고 있다. 신시내티 AP=연합뉴스

서 MLB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바깥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샌디에이고는 올해 멕시코 시리즈에 이어 2년 연속 월드 투어에 참여한다.

MLB의 발표 후 다저스 구단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리즈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저스 구단은 역대 4명의 한국 출신 선수가 다저스 블루 유니폼을 입었다며 박찬호(1994~2001년, 2008년), 최희섭(2004~2005년), 서재응(현 KIA 타이거즈 코치·2006년), 류현진(2013~2019년)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태극기를 두른 김하성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김하성은 "제가 입단했을 때 조국에서 샌디에이고와 메이저리그를 대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MLB 사무국은 서울시리즈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멕시코 시리즈(휴스턴 에스트로스-콜로라도), 6월 9~10일 런던 시리즈(뉴욕 메츠-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시범 경기 기간인 3월 10~11일 도미니카공화국 시리즈(보스턴 레드삭스-탬파베이 레이스)까지 4차례 월드 투어를 벌인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한국남자 400m 계주 亞선수권 38년 만에 메달

### 38초99로 3위... 최강 일본은 출전 안 해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3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이시문(22·한국체대), 고승환(26), 신민규(23·이상 국군체육부대), 박원진(20·속초시청)이 이어 달린 한국 계주팀은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8초99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이 남자 400m 계주에서 메달을 따낸 건 장재근(61) 전선수총장이 현역으로 뛰었던 1985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무려 38년 만이다.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은 1981년 도쿄,

1983년 쿠웨이트시티, 1985년 자카르타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따낸 이후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 태국 방콕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예선에서 39초33으로 1조 2위, 전체 4위로 결선에 진출한 한국은 결선에서 기록을 더 단축해 3위를 차지했다.

결선에서는 100m 10초09·200m 20초19의 기록을 보유한 2006년생 '태국의 볼트' 푸리폴 분손이 앵커(마지막 주자)로 뛰 태국이 38초5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은 38초87로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왼쪽부터)신민규·고승환·이시문·박원진이 환호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제공

38초99로 39초12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3위를 했다. 남자 400m 계주 아시아 최강 일본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날 한국 대표팀이 세운 38초99는 남자 400m 계주 한국 역대 5위 기록에 해당한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 디오픈 상금 38억 사상 최다

지난해보다 6억 원 증액

20일부터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 (파71·7094

야드)에서 열리는 제151회 디오픈 골프 대회의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38억4300만 원)로 정해졌다.

디오픈을 주최하는 R&A는 올해 대회 총상금을 1650만 달러로 올리고 우승 상금도 50만 달러 더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대회 총상금은 1400만 달러였다.

총상금 인상에 따라 2위와 3위 상금도 크게 올랐

다. 준우승 상금은 170만8000달러, 3위 상금은 109만5000달러다.

총상금과 우승 상금 모두 디오픈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로써 올해 4대 메이저대회 우승 상금

은 모두 300만 달러를 넘기게 됐다.

4월 마스터스 우승자 온 램(스페인)은 324만 달러를 손에 넣었고, 5월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브룩스 켈카(미국)는 315만 달러를 받았다. 6월 US오픈 챔피언 윈덤 클라크(미국)는 360만 달러를 획득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우승 트로피 클라레 저그. theopen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